

## 회장 신년사



“어촌어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어 넣는 사업 추진할 터.”



## 한국어촌어항협회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7년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산인 여러분!

지금 우리 수산업은 시대적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내어놓고 있으며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협회도 어업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협회는 우선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업무를 실시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협회의 진면목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기술교류회의 개최와 두 차례에 걸친 해외어촌어항조사단을 일본과 유럽에 파견함으로써 외국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항시설물 안전점검업무와 어항유지준설 업무의 수임으로 협회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어항청소선 및 다기능수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함께 연안수역 정화·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촌·어항의 관광진흥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도시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 주었으며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미래 수산업의 블루오션 분야인 해양어촌관광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기도 하였습니다.

수산인 여러분!

새해에는 지금까지 협회가 추진해왔던 일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어촌·어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어넣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어촌·어항·어장의 연계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둘째, 어항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어항 기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항 및 연안수역의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어촌·어항의 관광진흥 및 문화창달과 다섯째, 수산업 기반조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혁신과 효율, 성과를 한 쪽으로 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산인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협회는 어업인의 동반자로서 수산업의 기반 구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오니 차질 없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1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배 평 암